

전북 지역내총생산 최하위권

3.0%로 제주·강원에 이어 세번째... 개인소득은 2000년에 비해 2배 증가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9개 도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만 달러 시대 전북의 자화상'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북의 GRDP(지역내총생산)은 44조원으로 2005년에 비해 66.5% 증가했다.

이는 전국 비중의 3.0%이며 전국 9개 도 중 제주, 강원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대비 2014년 증가율은 66.5%로 전국 평균(61.5%)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462만 원으로 2005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9개 도 중 제주 다음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54.2%)보다는 다소 높은 68.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전북 1인당 개인소득은 2,230

만4,0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9개 도 중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632만8,000원에 비해 1.3배 넘게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과의 차이는 2000년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같은 기간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1,314만원으로 1995년에 비해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9개 도 중 전남 경북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이지만 199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전북 평균 자산은 2,352만7,000원으로 2012년 대비 8.0% 증가했으나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도내 평균 부채는 3,882만원으로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대비 무려 25.0%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3만4,000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3.5%(약 6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내 농가인구도 20년전에 비해 5.1% 감소한 22만7,000명이며, 전국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농가 비중은 8.9%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0세로 2005년에 비해 4세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기대수명 82.4세 보다 0.4세 낮은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78.3세,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85.5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7세 더 높았다.

인구 만명당 의료기관은 19개(전국 평균 17개)로 9개 도 중 전북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전북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2008년에는 31.4%로 9개 도 중 가장 높았으나, 2009년 급감한 이후 반등과 하락이 이어져 최근 7년 사이 하락폭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북도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4.1%로 전국 평균(27.1%)보다 낮고, 9개 도 중 경북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인재용 기자



만경강변에 드론공원 조성

익산국토청, 완주군과 MOU 체결

최근 증가하는 드론이민자들의 항공레저 욕구 충족 및 전북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의 첫출발 만경강에 드론공원을 조성한다.

28일 익산국토관리청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국가하천 만경강 고수부지 내에 드론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이날 MOU를 체결했다.

오는 12월 발주 예정인 만경강 신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드론공원은 내년 하반기 중 영농보상을 거쳐 착공될 계획이다.

약 1만㎡(축구장 크기)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은 물론 동호인들도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만경강 드론공원은 장애물이 없는 하천 고수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또 전주시와 인접해 있고 국

도17호선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드론 공원으로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다.

드론공원 주변에는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 등도 설치할 계획이어서 만경강 고수 부지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한편 만경강 드론공원은 익산국토청이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사업 완공 후에는 만경강 고수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완주군에서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뒤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드론공원이 전북을 대표하는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국제뷰티엑스포서 바이어 이목 '전북생진원' 집중

전북·전남·강원과 공동세일즈관 운영... 상담 이어져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뷰티엑스포(Beauty EXPO Korea)'에 참가해 차별화된 컨셉으로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제협력권(전북, 전남, 강원)육성사업 바이오활성소재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전북 화장품 기업 5개사 및 전남 1개사가 참가해 Beauty on Platform이라는 공동 세일즈관을 구성하고 뷰티관련 사업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장을 구성해 많은 관람객 및 바이어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바이어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참가업체의 제품으로 구

성한 뷰티시크릿팩스를 제공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전시회와 연계해 25일 오후 6시부터 코엑스 회의실에서 신규바이어 및 거점 바이어 연계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 10여명의 국외 바이어와 참가기업간의 B2B상담회와 일대일 상담도 추진했다. 그 결과, 약 733만 3,000달러(60여건)의 계약성당 성과를 올렸고 이 중 해외 수출 및 국내 수출 유통사와 납품 및 입점 협의를 통해 총 8만8,000달러(9건)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OEM, ODM생산을 통한 수출 계약 요청이 많았으며, 품목으로는 마스크팩이 국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얻

었다. 특히, 융복합 탄소 소재를 화장품에 접목한 이안코피아의 토르마린 바이오셀룰로오스 탄소마스크 팩과 지리산처럼의 우리 고유의 전통오일 및 국산 참깨들의 좋은 성분을 활용한 안전한 소재의 스크럽 어의당의 전통 한방 비법으로 만든 천연한방 스킨케어 바이어 및 소비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생물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 뷰티시장개척을 위한 특세 공략 등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및 경제협력권내 화장품 기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마케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전시회

내달 7일까지 3D작품 위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흥원 3층에서 2016년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전시회를 개최한다.

'Beyond the Culture'라는 주제로 열린

는 이번 전시회는 3D게임그래픽, 게임 프로그래밍, 2D디자인, 공간디자인 4개 분야에서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들의 창의적인 다양한 콘텐츠 30여 작품(3D프린팅 건축 모형, 패키지 디자인, 모바일 게임, 3D캐릭터 피규어 등)을 전시하게 된

다. 또한 콘텐츠 관련 기업 및 학계 전문가를 초대, 전시작품 평가 및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예비 창작자들이 가진 콘텐츠 창작역량을 강화할 위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경진원, 중국·동남아유학생 수출지원단으로 무역 어려움 해결

도내 동남아, 중국 유학생들이 움직이는 보부상으로 또는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민간 대사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자 하나 무역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중국, 동남아 유학생 수출지원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중국 1개 국가로 시작했던 수출지원단 사업은 올해 동남아까지 확대돼 FTA 체결국을 대비해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의 대표역할을 하는 유학생 수출지원단원들은 도내업체와 바이어간 정확하고 빠른 업무 교신을 통해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항을 도내업체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유학생들은 통번역 지원, 바이어 발굴, SNS 블로그 운영을 통해 무역실무를 익히며 도내기업 제품을 자국에 홍보해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내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도 적극 활용돼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운영해 유망 유학생들을 발굴하고 적극 활용돼 도내 신규 수출 기업들의 수출기반 마련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커리어 캠프 참가자 모집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진로와 취업을 놓고 고민하는 도내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 커리어(Career)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대학생들이 자기비전 및 잠재력을 도출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취업 역량 및 셀프 리더십 등을 개발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실시되며, 비전 탐구 및 비전리스트 작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특강, 성공적인 면접대비 사례, 이미지 메이킹 및 셀프리더십 강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모집은 오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40명 선착순으로 하며,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카페 또는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mj007@jbank.co.kr)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임종식 전북조달청장, 현장 애로 청취

우수업체 코팅코리아 방문해 제조공정 둘러봐

임종식 전북조달청장은 28일 우수 조달물품 폴리이탈렌피복강관 생산 업체인 (주)코팅코리아를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재에 위치한 (주)코팅코리아는 지난 2000년에 설립해 폴리이탈렌 피복강관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

로 이탈렌지압용과 환관소켓 연결 방식 내외면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임종식 청장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있는 제품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